



주말·'놀토' 겸친 스위스전 벌써부터 '후끈'

장맛비 속 길거리 응원 계속된다

‘붉은 장맛비 속 길거리 응원은 계속된다’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스위스와의 경기가 열리는 24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장맛비가 예상되지만 12번째 태극전사의 길거리 응원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오후 늦게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이번 비는 스위스전이 열리는 24일과

25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스위스전은 한국의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다 ‘놀토’(쉬는 토요일)까지 겹치면서 대규모의 길거리 응원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출근을 걱정했던 직장인들과 ‘놀토’를 맞은 초·중·고등학생들까지 길거리 응원에 적극 가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붉은 악마’ 광주지회(지회장 이준호)와 문화단체 ‘모란꽃(대표 한길우)은 2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전남대 후문에서 거리응원을 진행한

다. 주최 측은 스위스전의 경우 주말과 겹쳐 지난 프랑스전 참가인원 1만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도 24일 자정부터 6시간 동안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개방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진남체육관 ▲광양 실내체육관 ▲순천 팔마체육관 ▲목포 실내체육관 등 4곳에서 실내 응원전이 열린다. 광주지역 영화관도 응원 열기로 가득할 전망이다. 광주 밀리오레의 경우 전체 5관 중 1개관에서 스위스전을 중계한다. 전체 333석 중 앞자

24일 스위스전 응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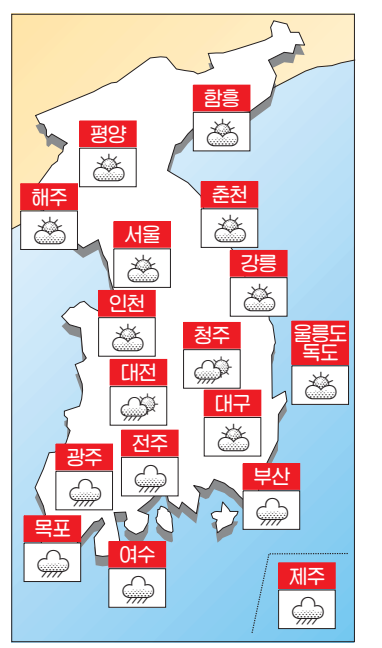
장소	시간
광주월드컵경기장	00:00~06:00
전대후문	23일 22:00~06:00
여수진남체육관	23일 21:00~06:00
광양실내체육관	03:00~06:00
순천팔마체육관	03:00~06:00
목포실내체육관	03:00~06:00

리와 뒷자리 몇 개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벌써 매진됐다. CGV 상무점도 현재 5개관의 예매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고, 롯데시네마 1개관 330 좌석도 다 팔렸다. 광주역에서는 22일 ‘금강산 월드컵 열차’가 출발했다. 이 열차에 탑승한 200여명의 광주·전남 지역민은 금강산 관광을 한 뒤 둘째 날인 24일 새벽 스위스전을 관람하며 단체응원을 펼친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경기 당일 경찰 150여명을 응원전에 열리는 전남대 후문과 광주월드컵경기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6월 23일 (음 5월 28일) <전국날씨>

남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1~26℃
대전	흐리고 비	21~24℃
서울	흐리고 비	20~24℃
부산	흐리고 비	20~25℃
대구	흐리고 비	20~25℃
인천	흐리고 비	20~25℃
전주	흐리고 비	20~25℃
제주	흐리고 비	21~24℃
목포	흐리고 비	20~25℃
여수	흐리고 비	21~28℃
울릉도	흐리고 비	21~27℃
독도	흐리고 비	20~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0:06 썰물 < 05:34
12:02 17:31
여수 밀물 < 07:04 썰물 < 01:09
19:51 13:07

▲해돋이 05:19 ▲해질 19:50 ▲달돋이 02:46 ▲달질 17: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6	20/24	20/27	19/27	20/25	20/24

“승리의 땅으로” 붉은 물결 넘실

■ 차영록 통신원 ‘여기는 하노버’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승리의 땅 ‘하노버’는 벌써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22일 한국 대표팀이 ‘승리의 땅’ 하노버에 도착하면서 250여 명의 하노버 교민을 비롯한 한국 응원단의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던 ‘붉은 악마’ 응원단이 속속 도착하고, 독일 각지에서 수 천명의 교민 응원단이 물러들고 있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 김치와 인삼 샘플을 나누어 주는 등 ‘역동 한국’(Dynamic Korea)을 홍보하고 있다.

교민들은 한국 대표팀이 남은 스위스전에서 승리해 G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기를 기대하며 바탈로(Waterloo)광장에 모여 그 어느 때보다

바탈로 광장서 조수미·싸이·교민 함께 합성

‘대~한민국’ 인사하자 ‘오 필승 코리아’ 화답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태 사범은 자신의 도장을 원정 응원단에게 속속로 제공하는 등 교민들의 응원단 뒷바라지도 눈부시다. 바탈로 광장에서는 23일 오후 국내 가수 싸이와 독일 합합 팀 공연이 있고, 재독 한인 음악인들과 하

노버 시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속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씨의 무대가 이어진다. 안성 남사당 풍물패도 거리응원에 나선다.

하노버 상인들은 가게에 태극기를 내걸고 시민들은 특수 기호처럼 신비한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땀지만 건강식이라는 김치도 먹어보려 애쓴다.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인사하면, “오 필승 코리아”로 화답하고 있다.

독일인 앙겔라 괴릭(35·회사원)씨는 “한국과 스위스 경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바탈로 광장에 나가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록(41)씨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이고, 전남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뒤 독일 하노버 대학교에서 생물화학 공학분야로 박사학위(작년 11월)를 취득했다. 현재 하노버 대학교 Technical Chemistry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

“스위스전 1-0 승” 네티즌 40% 예상

네티즌의 73%는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에서 한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http://kr.yahoo.com)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스위스전을 앞두고 예상 점수 조사를 벌인 결과, 네티즌 2천915명 중 40%가 ‘한국의 1대 0 승리’를 점쳤다. 응답자의 33%는 ‘한국이 2대 1로 승리’라고 대답했고 ▲23%는 ‘한국의 0대 1 패배’라고 전망했다.

스위스전에서 가장 활약할 선수로는 ▲박지성(72%) ▲이영표(12%) ▲이천수(9%) ▲조재진(7%) 등을 꼽았다. /이승배기자 lsb54@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존속하라”

광주·전남 1천여명 상경투쟁

광주·전남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전국 자동차정비업자협회’가 23일 오전 제2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속을 위한 전국 켈기대회’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 자동차정비업자협회’(이 사장 조정래·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정비요금공표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의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이 이에 반발, 켈기대회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켈기대회에는 광주·전남의 1천여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를 포함해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로부터 영세 정

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비요금공표제도’를 건교부가 사실상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이는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비료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받겠다고 밝히고 있어 그 파문이 대단수 차량 소유주에게도 뿔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정비요금공표제도=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를 할 경우, 정비업체가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시간당 공임을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했다.



어르신에 안경 기증

‘대한안경사협회 광주시 안경사회’(회장 최창수)가 22일 광주 공원 시민회관 앞에서 개최한 ‘보훈가족·소외노인 안경기증 및 경로행사’. 안경사회는 이날 1천200여명의 노인들의 시력을 측정하고, 점수를 제공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태극전사 여러분! 당신을 믿습니다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화신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SASA & 동진제리
우리카사 보원건설
신우건설